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3월 29일 주일 설교입니다.

< 다 이루었다 >

요한복음 19:28~30 / 새찬송가 143장 (통일 141장) 웬말인가 날 위하여

1.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

먼저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. 이는 아담과 하와의 실낙원의 고난이며 이 고난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(겔18:4). 성경은 죄로 인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(벧전4:15).

그런데 죄를 없애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. 이는 그 무슨 위대한 일보다 가장 위대한 값진 일입니다.

인생이 해 아래에서 하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원가를 이루기 위함입니다. 그러나 죄를 없애지 않고, 즉 죄로 인한 죽음의 멸망을 없애지 않고서는, 그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들 결국 다 죽음의 멸망아래 놓이게 됩니다. 결론적으로 아무 유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(전2:11).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요청하였습니다.

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로되 인류의 죄를 없애시는 고난을 당하신 유일한 분이므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(히4:15).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죄를 없애지 못했는데 말입니다.

2. 내가 다 이루었다

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‘다 이루었다’고 말씀하셨습니다(요19:30). 이는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악한 것 즉 정죄, 질병, 문제, 죽음, 지옥을 다 없애버렸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. 또 모든 좋은 것들 즉 죄 사함, 의롭다하심, 치료, 축복, 영생을 얻게 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.

더불어 예수님은 “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(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?)”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(막15:33,34). 이는 예수님께서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탓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과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애심으로 인해 ‘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’는 승리의 말씀을 같이 하신 것을 말합니다.

3.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의 눈

이런 십자가를 육신의 눈으로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

말한 죄로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(사53:4).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마땅히 형벌 받을 모든 백성의 허물을 대신한 것입니다(사53:8),(새찬송가151장1절).

육신의 눈으로 볼 때 ‘다 이루었다’는 외침은 한 형벌로 죽어가는 죄수의 절규에 불과합니다.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외침은 인류의 모든 죄와 악을 청산하신 위대한 승리의 외침이요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(골2:13-15).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발한 증서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(골2:15).

우리는 이 십자가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혀져서 바라봐야 합니다.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기적과 치료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(사53:5).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항상 영적으로 보고, 영적으로 깨우치며, 영적으로 판단하며 영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.

< 적용 & 실천 >

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.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생명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?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.